

## 사랑하는 신혼부부의 형제님께,

우리는 연륜에서 배운 간절하고 멋진 선별된 훌륭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형제님의 참석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결혼과 성약

▶ *진리는 무엇인가? /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 2013년*

60년 동안 결혼하여 함께 살아온 어떤 부부에 관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들은 그 세월 동안 거의 다툰 적이 없었고 함께한 나날들은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을 나눴으며 둘 사이에는 어떤 비밀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 부인에게는 선반 꼭대기에 둔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에게 절대 상자 안을 들여다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수십 년이 흐른 후, 드디어 남편은 그 상자를 내려놓으며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봐도 되겠냐고 물어보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허락하자,** 남편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실로 뜨개질 한 작은 접시 깔개 두 개와 2만 5천 달러가 들어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자, 아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내 어머니께서 내가 당신에게 화가 날 때나 당신이 내가 좋아하지 않는 어떤 일을 할 때 마다, 작은 접시 깔개를 뜨개질하고 그 후에 그것에 대해 같이 이야기를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이 감미로운 이야기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 생활 60년 동안 아내가 접시 깔개를 겨우 두 개만 뜨개질 할 정도 밖에 자신이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았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자신에 대해 심히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접시 깔개는 설명이 되었고, 그럼 2만 5천 달러는 무엇이죠?”

아내는 다정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지난 세월 동안 뜨개질해서 만든 접시 깔개들을 팔아서 모은 돈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혼 생활의 갈등에 대처하는 흥미 있는 방법을 알려 줄뿐 아니라 제한된 정보를 근거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의 어리석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형제님, 제한된 정보로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진중하게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 *여성의 존엄성 / 2000년 4월 / 리차드 지 스코트*

저는 (형제님들에게) 하나님의 독신 또는 결혼한 딸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힝클리 회장님께서 주님께서 되풀이하여 그의 종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의 소중한 딸들에 관해 말하도록 한 내용을 아름답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탁월한 창조물입니다. 지구가 형성된 직후, 낮이 밤과 분리된 후, 물이 땅과 나뉘고 후, 식물과 동물이 창조된 후, 남자(남성)가 지상에 놓인 후, 여자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일이 완성되고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딸보다 더 아름답고 더 영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래야 하는 이유를 이해와 더불어 덕으로서 걸어갑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신성하고 거룩한 것으로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그녀는 정신을 도야하고 꾸준히 이해의 범위를 넓히며 자신의 영을 영원한 진리로 살찌웁니다. 그런 후 힝클리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딸을 무시하면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 결혼 생활의 행복 / 토머스 에스 몬슨

저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이... [자주 인용하신 다음 말씀을 좋아합니다.]

“여성은 남성에게서 취해져 나왔습니다. 남성에게 밟히도록 밭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와 동등하게 되도록 옆구리에서 취해졌으며 보호받도록 그의 팔 아래서, 사랑받도록 그의 가슴 가까운 부분에서 취해졌습니다.” 그러나 늘 제게 깊은 감동을 주는 메시지는 단순하면서도 현명한 다음 충고입니다. “남자(남성)는 여자를 울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방울을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주님의 등대”, 『성도의 벗』, 1991년 1월호, 112쪽.)

형제 여러분,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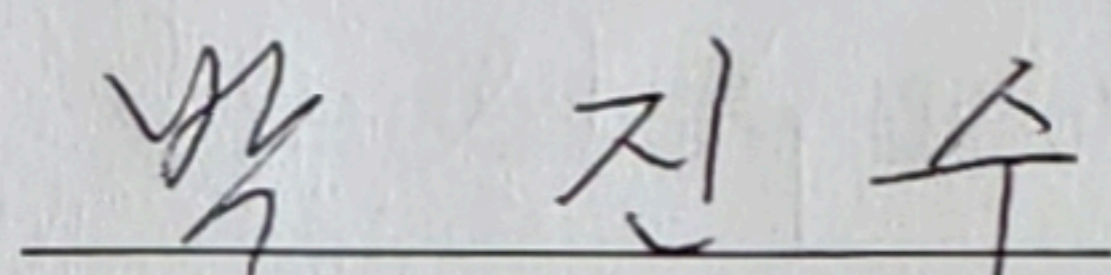
여러 상황에 따른 사랑이 아닌 영원한 사랑에 속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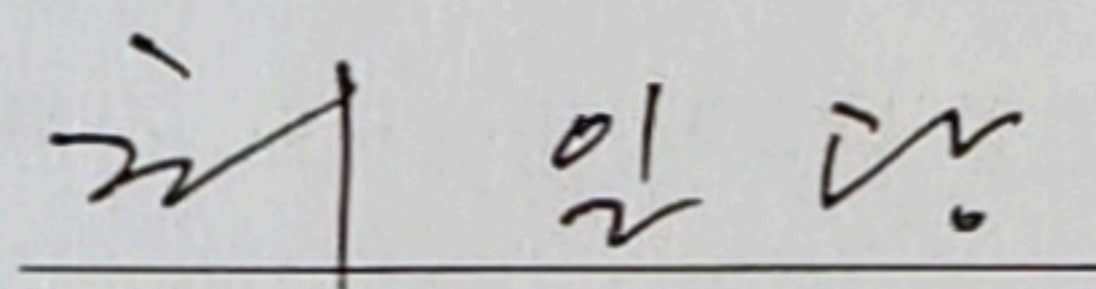
형제님의 일보다 우선해서 자매를 사랑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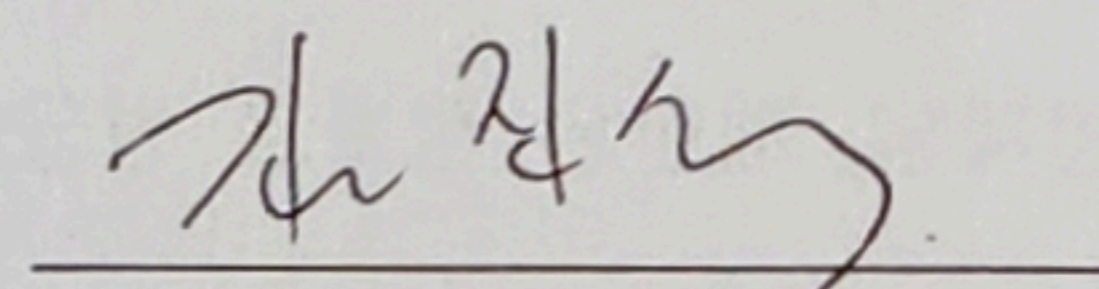
형제님의 행복과 안전은 자매님의 소속됨과 평안에 있습니다.

형제님의 선택을 응원합니다.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진실한  
서울 동 스테이크 회장단

  
1 보좌 박진수

  
회장 최일광

  
2 보좌 김진식